

OG6) 콩쥐팥쥐 동화마을 기본계획

신상섭, 노재현, 김현욱, 김홍균*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디자인그룹 GS

1. 서 론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와 국민소득의 신장으로 인해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소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점진적 정착으로 각 지자체들은 소득 증대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녹지공간 확충 등 환경 정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의 성격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볼거리·먹거리 위주의 행락성 체험에서 문화체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의 이미지 확보와 문화 컨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문학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실례로 춘향테마파크(남원시), 관음사 연기설화를 바탕으로 한 효녀심청공원(곡성군), 흥부발생지와 발복지를 배경으로 한 흥보마을(남원시), 흥길동 생가복원(장성군), 변강쇠가로 알려진 판소리를 모티브로 한 변강쇠 백장공원(남원시) 등 고전 소설 뿐 아니라 근대 소설인 토지(토지문화공원), 메밀꽃 필 무렵(메밀꽃랜드), 혼불(혼불 문학공원) 등에 이르기까지 소설의 배경무대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으로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이 제고되고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여가선용 장소가 양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콩쥐팥쥐’ 전래동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 일대로서, 소설에 나타나는 입지특성과 등장인물들의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전라감영 행차로와 고려 현종이 피신했던 앵곡역참이 있었던 곳으로 문학적·역사적 주요 테마가 내재되어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앵곡마을은 전통마을 구현을 위한 토속경관상과 장소성을 잘 갖추고 있어 전래 동화마을 입지여건으로 최적의 장소라 하겠다.

따라서 본 계획은 ‘콩쥐팥쥐’ 전래동화의 모티브로 한 테마공원, 도시와 농촌마을의 연계, 그리고 토속경관의 보전이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콩쥐팥쥐 동화마을’조성을 위한 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창출, 주변 도시와 연계된 관광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 제공 및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코자 시도되었다.

2. 계획의 전개과정

한국의 대표적인 권선징악형 고전소설로 1919년 발간된 대창서원판 大鼠豆鼠(콩쥐팥쥐)傳과 신증 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를 근거로 고증된 콩쥐팥쥐전 배경마을 권역(전라북도 완

주군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 일대)에 대한 동화마을 기본계획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발여건 및 현황조사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 3단계로 진행되었다. 개발여건 및 현황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규명하고, 사례연구 및 공간적 정황에 부합되는 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주변여건 등을 분석하였다.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이용프로그램, 공간구조 구상, 이벤트 구상 과정을 거쳐 SWOT분석에 근거한 최종 대안을 도출하였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경관보존형 개발이라는 최종안을 전제로 토지이용, 교통 및 동선, 시설배치, 식재, 포장, 건축, 앵곡마을 정비, 설계 특화계획 등 계획안 도출과 피드백 과정을 연계시켜 계획안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3. 개발 여건 분석

개발여건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요한 계획아이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주군 이서면은 인접 도시로부터 접근이 양호하며, 주변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다. 둘째, 앵곡마을은 마을과 마을길, 농경지, 저수지 등 토속경관성이 우수하여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경관을 갖고 있다. 셋째, 콩쥐팥쥐 전래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앵곡역이라는 역사성이 내재된 공간이다. 넷째, 산불피해지 경관에 대한 임상회복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은행제 등에 분포하는 수생식물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고부가가치형 동화마을로 조성함으로서 완주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지역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잠재력, 활용 및 개선방안 등 기초조사 분석내용 결과는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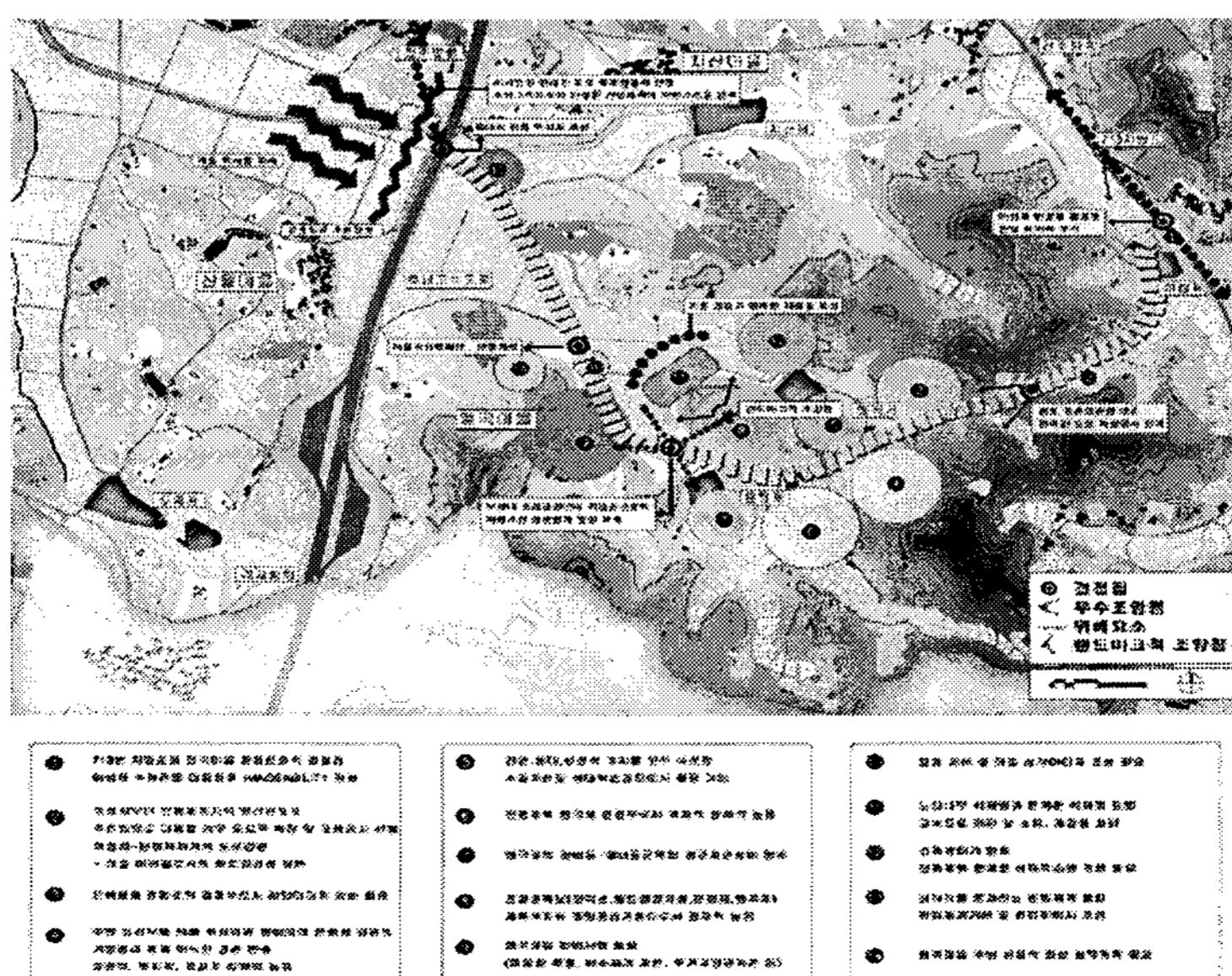


그림 1. 콩쥐팥쥐 동화마을 기초조사 종합분석도

표 1. 종합분석표

| 구분 | 현황 및 문제점 | 잠재력 | 활용 및 개선방안 |
|----------------------------|---|--|---|
| 입지 교통 관광 여건 분석 |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 김제, 익산, 정읍 등 도시권과 인접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과 전라선철도 그리고 국도 · 지방도를 통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접근 양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영남권에서도 접근성 향상 기대 구이-이서 간 도로개통예정으로 전주서부지역, 배후도시(인구 100만명)에서 접근성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리간도로의 확포장 및 이서와 이성리에서 주·부진입 체계 설정 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에서 접근성 제고 |
| | 주변 관광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악산, 내장산, 마이산, 선운산, 대둔산 등 국립·도립·군립공원이 입지 미륵사지, 금산사 등 주변관광자원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전주영화제, 전주소리문화축제, 남원춘향제, 익산 서동요 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네트워킹이 가능 전라북도의 중심권역에 개발부지가 위치하므로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축제행사와 연계시킬 경우 연중 관광객 유입이 용이해질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관광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Win-Win 효과 기대 전라북도의 중심권역 입지를 활용하여 거점공간화 유도 |
| 자연 환경 분석 | 지형 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동서 방향으로 표고 100m이하의 구릉지가 형성된 위요경관 형성 북서방향은 열려있는 지형조건으로 겨울철 계절풍의 피해 예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10% 미만의 경사지 권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개발에 용이 계획부지 중심부에 동산이 위치하여 landmark 요소로 작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적으로 위요된 거점 공간에 주제공원을 입지 지형적 적지분석에 의한 목적공간 조성 |
| | 식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산의 임상은 산불 피해지역으로 초기 천이단계 과정을 보여줌 은행제 등의 수생식물로 갯벌-왕버들 등 군락이 분포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임상회복계획으로 산림생태안정화 모색 수자원을 활용한 수생식물의 교육, 체험공간으로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공간의 생태체험학습원으로 활용 가능 마을숲, 경관숲 등의 조성 |
| |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고 100m 이하의 구릉지로 위요된 경관 이성제에서의 계획부지 접근로는 전형적인 향토경관을 이루고 있음 구릉지, 저수지 경관이 잘 어우러진 토속적인 농촌 경관 유지 느티나무, 노각나무, 스트로보잣나무, 왕대나무 등 산불피해지역의 조림지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릉지, 농경지, 저수지, 마을안길 등 전형적인 토속경관 산불피해로 바람직하지 못한 산림경관 무국적적인 주택 지붕개량으로 인해 향토농촌경관이 훼손 저수지, 과수원 등의 이벤트 공간화 및 축제마당 활용공간 다수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과 마을길, 농경지와 과수원, 저수지 등 전형적인 토속경관상의 보완 산림경관의 회복, 경관농업의 활용, 향토식물의 도입, 콩밭 경관 구축 |
| 인문 환경 분석 |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 논, 밭, 과수원, 목초지, 묘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 호남고속도로를 결절점으로 동서생활권 분리 양상 면리간도로를 통해 이서방향(포장로)과 이성방향(비포장로)에서 각각 접근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농경지를 가용지로 적극 활용 가능 저수지와 수로를 활용하여 수경시설과 수생식물 등 생태보존계획 및 활용가능성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는 친환경마을로, 농경지는 경관농업지로, 밭과 과수원은 주제공원과 연계시키며 가용지 확보 |
| | 토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소유는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 금녕 김씨, 전의 이씨 등 종종 소유의 토지 분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사유지이나 지장물 등이 적고, 지가 또한 주변 지역보다 저렴 산불피해가 빈번하여 공개념의 토지이용 및 관리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및 민자유치를 통한 최소한의 토지 매입과 개발방침과 연동시킨 토지이용 |
| 관련 계획 및 법규 |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관-구이간 국도대체도로 L=8.3km, 구이-이서간 국도대체도로 L=10.50km, 이서-용정간 국도대체도로 L=7.00km가 시공 중에 있으며 완공년도는 2007년도임 모악산, 완주군, 전주시, 행정복합도시 등 지역특화사업계획 부지와의 관련성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대체도로 준공시 접근성 제고로 유입인원 증대 예상 순창, 전남 동부지역, 경남지역 등과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 국가 및 시군 추진사업 대상지와의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악산도립공원, 옥정호,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 등과의 연계루트 확보 배후도시 및 관광명소와 연계된 개발 |
| |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지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분류 동화마을개발 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변경이 전제되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규의 검토로 개발타당성 확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 모색과 관련한 합목적적인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의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을 대표하는 완주군의 동화마을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정체성 구현 |

4. 기본 구상

4.1. 기본전제

계획의 주제어는 문화와 생태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직선과 곡선’, ‘天·地·人’의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기본 전제는 (1) 콩쥐팥쥐 동화마을 정체성 확립,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3) 교육과 레저와의 연계, (4) 접근성 및 대중성 확보, (5)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적정 규모의 개발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공간구상은 분산, 연계, 거점, 장소성이라는 네 가지 개념을 전제로 팥쥐마당, 역참마당, 은행제 생태연못, 주제관, 앵곡제 수경원, 캐릭터공원, 콩쥐마당으로 전개하였다.

4.2. 공간구상 및 대안설정

대안에 대한 SWOT 분석평가를 통해 각 안의 장점과 단점,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추출하여 경관보존형 개발 전략을 최종안으로 도출하였다. 개발계획은 보존지, 소극적 개발지, 개발지 등의 기초 조사 적지분석에 근거하여 문화체험 및 경관시설지, 광장 및 상징시설지, 운동 및 오락시설지, 테마 시설지, 생태체험 및 휴양 문화시설지, 주제체험시설지, 상업시설지, 주거지, 완충녹지권역 등으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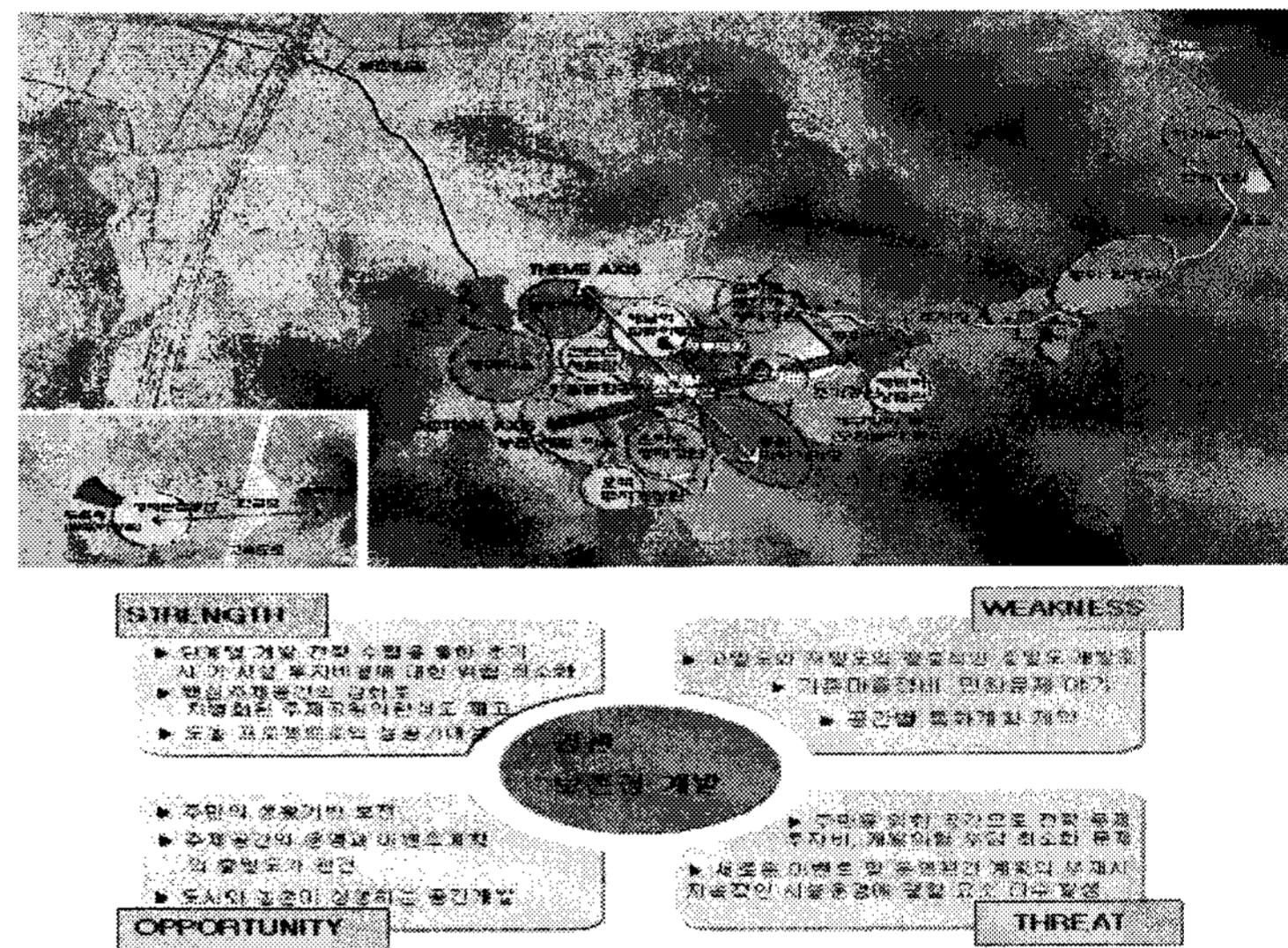


그림 2. 콩쥐팥쥐 동화마을 최종대안

5. 기본 계획

5.1.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의 기본 방향은 대상 부지의 잠재력, 개발방향, 기존 토지이용과 동선,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공간의 독자적인 성격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영역성과 장소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이용객의 만남과 이동, 휴식과 위락 등
의 행태를 고려한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사업 확충을 고
려하였다.

5.2. 동선계획

주진입과 부진입, 서비스차량 진출입, 주차수요, 이용교통수단 및 부지내 시설공간 이용행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공간이용 및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단위시설공간의 원활한 집분산, 식별성, 연속성 등을 고려한 주동선, 부동선, 보조동선의 위계를 반영하여 동선의 폭과 재료를 선정한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이용거리 단축,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view, vista, landscape control point 등 고려, 지형 및 식생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동선 체계를 설정한다.

5.3. 시설물 배치계획

시설별 기능, 형태, 이용특성, 시설간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 연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며, 동선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구성원 등의 이용행태 특성을 고려하여 靜中動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반영되는 등 어트랙션과 놀이, 이벤트체험과 교육 및 학습, 휴식과 식음, 상품구입과 이동이 리듬감 있게 연계되도록 한다.

5.4. 식재계획

향토수종 위주의 수종선정으로 자연식생과 조화되도록 하고, 옛 마을의 향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을숲, 정자목, 과실수, 야생초화류 등을 도입한다. 또한 수형과 꽃, 수피와 열매, 향기, 단풍 등 심미적으로 우수한 수종을 도입하여 계절별 활력이 제공되도록 하고, 경관식재, 가로식재, 유도식재, 미관식재, 지표식재, 녹음식재, 완충식재, 차폐식재, 경관보완식재 등 공간 성격에 부합되는 기능식재를 반영한다.

자연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되, 산불피해지역 그리고 소류지와 습지 등의 식생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식물군락의 특성을 강화하는 한편 잠재자연 식생에 근거하여 주변 산림은 소나무숲, 상수리나무숲, 조류유인 경관숲 등으로의 적합 임상회복계획을 수립한다.

5.5. 포장계획

포장재료와 패턴은 공간적 분위기를 결정해주는 주요소가 되므로 시설공간의 이미지와 주제, 이용계층과 이용압 등을 고려하여 재료와 색상, 패턴과 질감 등을 차별화하여 선택한다. 포장두께 및 표층재료의 선정은 교통하중, 노상조건,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용압이 높은 포장구간, 차량과 자전거, 보행전용, 보차공존 등을 구분하여 내구성과 유지관리 문제 까지를



그림 3. 콩쥐팥쥐동화마을 기본계획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촌과 테마파크의 이질적인 공간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되, 불투수성 재료의 사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표면배수에 유의한다.

5.6. 설계특화계획

동화마을을 자연과 어린이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환경공동체로 보고, 주제에 부합하는 예술적 요소를 도입하며, 동화마을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위해 이성제, 앵곡제, 은행제를 연꽃, 은하수, 물안개라는 자연 테마를 차용하여 특화된 수경으로 연출한다. 물리적이고 과도한 수식과 물량위주의 기념비적 조경을 지양하고 ‘녹음속의 동화마을’을 조성하여 감성적 공간을 연출하며, 동화, 이벤트, 축제, 예술, 먹거리, 생태 등 색다른 장소성과 동심의 세계를 자극하는 기쁨의 동산을 구현한다.

또한 역참의 원형을 추적하여 아사, 내삼문, 외삼문, 마사 및 마신당 등을 복원하며 전통 계승,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 확대 등 특화된 문화마당을 구현한다.

6. 결 론

도시와 농촌의 연계, 토속경관의 보전이라는 맥락 하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바, 테마가 있는 동화마을의 이미지 창출, 도시와 연계된 관광네트워크 구축, 도시민들의 휴식처와 교육 및 체험의 장, 역참 등 역사적 문화공간의 복원을 통해 문화경관의 회복을 구현코자 하였다.

역사지리학적 고증 등 문헌조사연구, 사례연구, 환경자원조사에서 추출된 문제점과 잠재력 등 SWOT분석, 기본구상안 전개 등을 통해 발전시킨 ‘콩쥐팥쥐전’ 전래동화의 배경마을 기본계획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콩쥐팥쥐 동화마을’이라는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소설속의 공간적, 지리적 정황과 부합되는 기능 및 시설을 수용하였으며 보행동선, 녹지축, 통경선 등이 주변 환경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둘째, 적지분석에 근거한 적극 보존과 소극 보존, 적극 개발과 소극 개발, 완충권역을 전제로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를 설정하였으며, 기존 마을과 농경지, 배후지 등과 무리 없이 조화되도록 하였다.

셋째, 공간의 이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제관과 모험놀이동산, 농촌체험마을과 역참, 생태학습원과 무지개정원 등을 연계시켰으며 완충공간 확보 등 이용, 관리, 운영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동선의 효율성과 연속성 및 위계, 수용력을 고려하여 지형 및 토지이용 여건에 부합되는 진입체계와 주차공간 그리고 보행자로와 자전거도로, 산책로와 오솔길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 향토성 짙은 농촌경관의 모색, 토속 경관미 연출, 쾌적성과 어메니티 등 다차원적인 가치가 수용될 수 있는 문화경관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하였다.

참 고 문 헌

- 신상섭, 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2.
- 유영대 · 이대중, 2004. 콩쥐팥쥐 연구의 검토와 쟁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물관
- 이상진 외 5명, 2006. 신기 · 북정 고분군 공원화 계획,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2): 101-112.
- 장성수 · 김관오, 2005.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적용사례. 문화관광연구. 문화관광학회지 7(1):47-54.
- 전라북도 무주군, 2000. 이동 전통된장 민속촌 기본계획
- 전라북도 완주군, 2005. 콩쥐팥쥐 동화마을 기본계획,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법종, 2004. 콩쥐팥쥐전 배경마을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법종, 신상섭, 노재현, 김현욱, 2006. ‘콩쥐팥쥐동화마을’ 입지타당성 확보를 위한 역사지리학적 고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13-20.
- 콩쥐팥쥐전, 1919. 대창서원.
- 전주부도, 1872.